



◇ 신타르타 태자는 서쪽 성문 밖에서 관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게된다. (3~4세기 작품. 나가르주나 콘다 고고학 박물관 소장.)



◇ 나무아래서 밧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신타르타의 모습. (2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페사위르 박물관 소장.)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전설상의 붓다 (2)

결혼 후 10년의 꿈같은 세월이 흘렀다. 태자는 자신의 궁궐에서 8만4천의 궁녀들에 둘러싸인 채 쾌락에 탐닉하고 있었다. 신타르타는 어느날 아침 마차를 타고 궁을 나왔다.

를 지껄이는 궁녀와, 온몸에 종기 부스러기가 난 궁녀도 있었다. 모두가 죽은 사람 같았다. 신타르타는 혼잣말을 했다. "유한한 세계에서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불결하고 흥취스런기까지 한 존재들

북문 밖 사문 얼굴 보고 출가 결심

처럼 빛이 바래고, 지팡이처럼 바짝 마른 등이 굽은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랐다. 누구인지 묻는 태자의 질문에 마부는, "저사람은 노인(老人)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이 늙게 된다"고 대답했다. 남쪽 성문을 나서자 이번에는 문동병에 걸려 물결이 흥취한 사람을 보았다. 마부는 설명하길 "그 사람은 병자(病者)인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병고(病苦)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또 서쪽 성문 밖에선 관속(官屬)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저 사람은 사자(死者)인데 죽은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겪을 숙명이지요" 하고 마부가 설명했다.

이다.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은 곁에 장식한 노리개에 흠뻑서 탐심을 낸단 말이다. 태자는 아소다라의 침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다. 아기와 산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일 저 팔을 치우면 아내가 깨어날 거야. 성불한 뒤 돌아와 내 자식을 안아 보리라." 신타르타는 왕궁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달렸다.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말은 발굽을 땅에 닿지 않고 달렸다. 길을 건넌 뒤, 수행하던 시종에게 말과 옷을 벗어주며 작별했다. 신타르타는 칼을 집어 머리칼을 잘라 허공으로 던졌다. 천신(天神)들이 달려와 머리칼을 유향처럼 주워 모았다. 말은 슬피 울며 돌아가서 곧 죽었다. 수행승의 모습을 한 천사

신타르타는 만족할 수 없었다. 고행을 참아내는 일로써 수행을 삼고 있었다. 그러나 신타르타는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한 고행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 스승은 신타르타에게 무념, 무상의 경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노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는 스승과 하직하고 보다 높은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났다. 세번째 스승으로부터 그는 사유(思惟)를 초월하고 순수한 사상만 남는 비상비상처(非相非非相處)의 경지를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출가한 궁국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6년동안 고행과 단식에 몰두했다. 사나운 비바람과 강렬한 햇살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천신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다. 신타르타는 마침내 고행이 무용(無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어나 강물에 목욕하고 죽을 조금 먹었다. 그의 몸은 얼어버린 기력과 아시타가 확인했던 상호들과, 후광을 되찾았다. 새들이 그의 머리 위를 날며 경의를 표했다. 그는 보리수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정각을 얻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결심을 한 뒤, 명상에 잠겼다.

세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지만, 산속에 들어가 6년고행과 단식에 몰두한 신타르타는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한 고행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 스승은 신타르타에게 무념, 무상의 경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노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는 스승과 하직하고 보다 높은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났다. 세번째 스승으로부터 그는 사유(思惟)를 초월하고 순수한 사상만 남는 비상비상처(非相非非相處)의 경지를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출가한 궁국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6년동안 고행과 단식에 몰두했다. 사나운 비바람과 강렬한 햇살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천신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다. 신타르타는 마침내 고행이 무용(無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어나 강물에 목욕하고 죽을 조금 먹었다. 그의 몸은 얼어버린 기력과 아시타가 확인했던 상호들과, 후광을 되찾았다. 새들이 그의 머리 위를 날며 경의를 표했다. 그는 보리수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정각을 얻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결심을 한 뒤, 명상에 잠겼다.

번역 김흥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미영순 (숙명여자대학교)

불교를 믿는다는 아련한 아이들을 구경하다가 지도법사님께 발목을 잡혔다. 묘유(妙有)의 공론(空論)으로 날 무참하게 깨뜨린 법사님은 맹목이(盲僧) 아니었다. 그때, 알곳은 의상 떨쳐입고 1500년이나 후세무민하는(後世) 사이 제법 그럴싸해진 게라고 생각하면서 백기를 들어 가르침을 청했다. 8400이나 된다는 장광설의 허(虛)를 깨부실 공공이로(化境)이니(법화경)이니, 징그럽게 두꺼운 경전을 팔이 빠지지않을 만큼 빌려갖고 나왔다. 질문을 나서며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는 걸" 단발머리를 팔랑거렸다.

이렇게 불교를 깨기 위해 경전읽기를 시작했다가,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치라'는 선(禪)에 이르러 불교를 신앙으로 선택했다. 파괴본능이 남보다 특별히 강한 모양이라고 혼자 웃었다. 이러저러 이제 30년이 넘었다. 목숨 건 듯 절도 선(禪)도 해보았고, 48계 받아 관쪽에 하얀 도장도 찍혔지만, 자성(自省)컨대 형편없는 날나리 불자임이 틀림없다.

공포(無有恐怖)이다. 대승 수행의 제일덕목은 보시라고들 하며 그 뜻은 베풀다·나누다라고 한다. 그러나 난 보시를 해본 일도 없는 것 같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것을 잠시 빌려쓰는 틈수에 내것이 있어야 베풀고 나눌게 아닌가? 난 그냥 회향이나 환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 죽은 뒤 쓸만한 장기는 필요한 이에게 주고 남는 건 수련의 실습교재로 쓰라는 건 육신회향일 뿐이다. 이 사회에서 얻어진 지식, 몽땅 돌려준대도 밀릴 것이 없다. 쓴다고 없지는 것도 아닌데 아껴두어 무엇하라.

불자로 자처는 하면서도 아무리 따져보아 불자다운 일이라곤 하는 게 없으니 스스로도 딱하기가 짝이 없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한가지만은 꼭 이루어

불심으로 실명극복... '하심' 삶 목표 "죽은 뒤 쓸만한 장기 필요한 이에게 주고고"

법당에 들면 주존불께만 겨우 3배 올리는데 게 고작이고, 산신각·칠성각에 들면 미술화도이거나 한듯 탕화 구경만 하고 나온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내 이름 적은 표지표 붙여본 일 없고 백중기도 말고는 기도라고 울려본 기억이 없다. 개구리 외골매(蛙) 소란한게 싫어서 청명염불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오나 가나 난 불자노라고 광고, 광고하며 다니다 열치않았다.

나는 삶의 에너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전한다.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내딛는 힘을 그 가르침에서 받아들여 실명(失明)을 이겨냈다.

불교에 대승으로의 발전이 없었다면 난 불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생이 아파서 보살이 아프다는 자비에 탄복하여 불자가 되었으면서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眾生)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다. 아직 구보리 아닌 구지식(求知識)에 머물러 있고 보리가 없으니 무엇으로 화중생을 하랴. 다만 구름이 모여 비로 쏟아짐을 믿으며 지식이 쌓여 보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알뜰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하려 애쓰는 건, 동병상련(同病相憐)에서 나의 처방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랄까? 지법개치(持法開濟)하라는 말씀을 너무 잘 배워 제를 지키지 않고도 무가애(無親愛)에 무유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 방심(放心), 마음을 아주 놓아버리는 경지까지는 못가고 하심 하나만이라도 해내고 싶은데... 희망사항이 기만 한 모양이다. 귀국한지 얼마 뒤은 사에서 당신의 법회에 나오라고 하셨다. 명사들의 법회, 온전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데리고 다니며 하셨지만 난 하심의 연습장으로 청년회를 택했다. 대학 나온 이도 별로 없어 말 한마디 하기가 아직도 조심스럽다. 교수나 박사나 하는 단어에 귀가 익은 나에게 팔도 못되게 어린 친구가 "언니, 밥 먹었어?" 소름이 끼쳤다. 열살까지는 친구라나, 말놓고 대드는데는 목이 막혀 입이 딱 벌어졌다. 무엇 하지고 나와 그리 비교는 하는지, 박사보다 잘난 저를 발견하고 즐거운 이와 계속 담소를 하자면 입술에 경련이 났다. 세월이 가는 동안 차츰 익숙하게 되었고, 하심을 훈련시켜주는 이들을 고마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심이 닦여진 것이 결코 아니다. 절 안에서는 반갑게 그들을 대할 수 있지만 절 밖에서는 그들을 피하기에 바쁘다. 나를 아는 누군가가 보게되면, 도대체 얼마나 체신없이 굴었길래... 허차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이다. 이따금씩 이런 이종구조의 하심을 닦을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 정말 하심을 이루겠다고 오늘도 무릎이 닿게 절을 해본다.



신토불이 정신에 이름하여 정선 메주!

MBC 「신인간시대」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우리콩 메주

강원도 깊은 산골, 굽이굽이 돌아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조용한 산골마을에 신토불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신토불이 정신을 못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돈연스님과 가목리 농민들은 오늘도 묵묵히 햇콩으로 쏘 메주를 띄우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돈연스님과 정선 임계 가목리 농민들이 함께 만든 정선 메주를 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것을 간직하려는 가람유통은 2천만 불자들의 식탁에 우리 농산물이 놓여지기를 기원하면서 山寺의 청정 무공해 메주 보급을 위해 願力を 다하고 있습니다.



- #### 정선메주의 특성
- 정선메주는 돈연스님이 6년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골마을에서 농민들과 직접 콩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햇콩으로 만든 메주입니다.
 -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자라는 콩으로 가마솥에 삶고 찌므로 묽어 매달아 말린 다음 다시 띄운 순수한 전통식 토종메주이므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 메주 한 개의 무게는 1kg~1.3kg입니다. 손으로 다듬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 차이는 있으며 한 박스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박스는 소두 한말이 조금 못되며 한 박스의 메주로 된장 10~12kg, 간장 8리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된장의 효능
- 양조간장과는 달리 전통의 된장, 간장은 암예방과 중금속 오염의 해독능력까지 겸비한 수준높은 자연식품입니다. 냄새가 독특하여 유령이 즐겨먹는 전통치즈의 독특한 냄새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구수하고 향기롭습니다.
 - 잘 띄운 발효메주에는 수백가지의 곰팡이 및 세균에 의해 단백질질을 생산하는 효모균이 집단으로 서식, 아미노산을 제공하여 된장은 위기능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척추와 뇌기능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동의보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 전통식의 된장, 간장은 우리 민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에 내세울 참된식품입니다.

● 메주 한 박스 가격은 40,000원입니다 ●